

# 구식민자의 젠더화된 초상\*

- 두 개의 전후(戰後), 젠더 정치를 통한 식민 기억의 (재)구성 -

김혜인\*\*

## 〈차례〉

1. 해방, 조선, 그리고 '구식민자'라는 물음
2. 식민의 잔여, '위장'·'모방'을 둘러싼 월경(越境)의 기억들
3. '38이북' 일본인 수용소와 냉전적 상상력
4. 결론을 대신하여: (불)가능한 표상들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해방 직후 잔류 일본인이 한국전쟁 전/후 남한의 문화정치적 구조에서 어떠한 굴절과 변용의 과정을 거쳐 기억되고 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은 미·소 점령군의 정책에 따라 약 1년에 걸쳐 송환되었다. 이 시기 잔류 일본인과 접촉·분리되었던 조선인의 경험은 실제 이들의 송환이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의 잔여인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지금-여기'에서 공존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기억'의 대상으로서 부재하는 자여야만 했던 것이다. 탈식민지화와 냉전 질서의 구도 속에서 잔류 일본인에 대한 재현은 한편으로는 식민·해방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기념)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

\* 이 논문은 <제3회 동아시아 국제 신진연구자 학술교류회-근대 동아시아의 문화: 접경과 횡단>(2011.2.12)에서 발표한 [해방 직후, 장치(Dispositif)로서의 일본인 수용소: 잔류 일본인 서사를 중심으로]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해령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로는 후식민의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상상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억·재현의 대상으로서 잔류 일본인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 기억의 (재)구성을 둘러싼 젠더 정치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잔류 일본인에 대한 기억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공산주의 치하 일본인 여성의 수난사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반일주의와 반공주의가 착종된 가운데 식민 기억의 (재)구성과 한·일 관계에 대한 상상이 이루어졌던 맥락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잔류 일본인, 일본인 여성, 젠더, 38이북, 일본인 수용소, 냉전적 상상력

## 1. 해방, 조선, 그리고 ‘구식민자’라는 물음

1945년 8월 15일, 제국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 해방이 교차하며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 식민지시기 일본을 비롯하여 만주, 타이완, 남양군도 등 과거 제국의 권역으로 퍼져 나갔던 조선인은 해방과 함께 한반도로 귀환하였다. 신생(新生) 조선인으로서의 탄생을 기획했던 다수의 해방기 귀환 서사에서 강조되었던 장면 중에는 빈곤이나 기아로 조선인이 수난을 겪는 장면과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 마주친 “일본인에게 벌은 준 가슴”에 “설렘”을 느끼는, 구식민자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장면이 있었다.<sup>1)</sup> 제국-식민지 체제의 해체로 일본인의 이동 역시 발생했던 상황에서 구식민지 지역에서 패전을 맞은 그들의 모습은 과거 조선인/일본인 간 비대칭적 권력구도의 역전을 상상할 수 있는 방식 즉, 과거 조선인을 수탈했던 일본인 관료나 부호가 응징을 당한 후 쫓겨 가는 형상으로 스테레오 타입화되어 재현되었다.

식민지시기 일본인 가운데에는 총독을 비롯하여 고위 관료, 정치가 집

1) 김만선, 『압록강』, 『압록강』, 깊은샘, 1989, 156쪽.

단, 군부 등 식민지배체제를 구축했던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다. 또한 오랜 도한(渡韓)의 이력을 지닌 식민 1세대나 ‘자신들의 게이쵸’를 살았던 식민 2세대 역시 있었고,<sup>2)</sup> 여러 이유에서 조선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자들 역시 있었다. 식민지배체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유지했던 일본인의 활동이나 이력 등은 그러나 해방기 서사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강했다. 오히려 이들은 ‘쫓겨 가는 형상’으로 스테레오 타입화되어 추상화되었다.<sup>3)</sup> 해방은 곧 신생 민족국가의 영토 경계가 잠재적으로 확정되는 기점이었다. 실제 구체적인 언어와 신체로써, 식민화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조선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치했던 이들은 신생 민족국가의 ‘적’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탈식민적 상상 속에서 동질화되고 추상화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 일본인의 삶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재현하며,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한 허준의 『잔등』(『대조』, 1946.1~7.)은 이례적인 텍스트로 평가받아 왔다. 이 소설에는 과거 일본인에게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들과 함께 반제국주의 투쟁을 했던 일본인 가도우를 기억하면서 패전 이후 만주를 떠돌며 빈곤과 기아 상태에 처한 일본인을 연민하는 조선인 노파가 등장한다. 해방 이후 일본인을 과거 조선인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도구화했던 식민자로서만이 아니라, 국가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혈벗은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동정하는 노파의 태도는 ‘가해자로서의 일본인’과 ‘피해자로서의 조선인’이라는 단일한 이분법적 구도를 초월한 보편주의적 윤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sup>4)</sup> 이는 타자와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더불어 제국-식

2) 사와이 리에, 김행원 옮김, 『엄마의 게이쵸,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45쪽.

3) 이는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적 관점으로 식민지 및 해방의 순간을 기억하는 서사에서 나타난다. 해방 직후 일본인은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과 ‘민족의 적’이라는 층위에서 겹치며, ‘쫓겨 가는 일본인’ 형상은 공산군의 전사(前史)이자 이들의 ‘패망할’ 미래로서 재현되었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로는 주요한의 ‘이것이 꿈이라면,’(『사상계』, 1955.2)과 박종인의 『물망초』(『사상계』, 1955.8) 등이 있다.

4)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 『상허학보』 제17집, 2006, 188쪽.

민지 체제가 만들어냈던 다층적 경험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작가 나름의 모색의 결과였다. 물론 이 소설 역시 일본인과의 접촉을 우연하고 순간적인 접촉으로 재현하거나, 풍문이나 타인으로부터 이들에 관해 전해 듣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해방기 서사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일본인을 처벌·응징하는 소년과 그들을 연민·동정하는 노파를 동시에 제시하며 당대 구식민자에 대한 조선인의 정념을 다각도로 그리는 가운데, 시선의 주체와 대상 간 거리가 다른 소설보다 근접해 있다는 변별점을 지닌다.

그런데 「잔등」이 보다 문제적인 이유는 거리를 배회하는 혈벗은 일본인 이외에 또 하나의 존재 역시 포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저기 저 골통이에 그전 저네 살던 데에다가 한 구통이를 잘라”<sup>5)</sup> 만든 수용소에 격리되어 있는 일본인 집단이 그것이다. ‘거리’의 일본인이 조선인 노파나 그 노파의 시선에 감화 받는 주인공 나에 의해 포착되며 언젠가는 사라질 동적(動的)인 존재로 재현된다면, 수용소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은 조선인과 동일한 시·공간에 두텁게 깔려 있는 정적(靜的)인 집단으로 재현된다. 이 정적인 집단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인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탈식민적 열망이다.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도망도 가고 더러 총 두 맞아 죽구”(447) 하는 가운데 “남아 있는 놈”(447)들을 가둔 곳으로 언급되는 이 수용소는 과거 식민자/피식민자 간 위계화된 권력구도의 역전이 투사된 상징적 공간이다. 하지만 수용소 울타리는 일본인을 “그 밖에선 못살게 하는”(447) 경계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조선인으로 하여금 그 내부에 있을 식민자의 다층적인 얼굴 및 그들의 삶의 상태를 보거나 알지 못하게 하는 괄호이기도 했다. 일본인에게 적대감만을 느끼는 소년은 수용소 외부를 감시하며 오로지 그곳을 탈출하는 자를 잡아 “아오지나 고무산 같은 데”(447)로 보내버리는 데 집중할 뿐, 그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응징과 처벌의 탈식민적 열망 속에서 수용소

5) 허준, 「잔등」, 『잔등』, 을유문화사, 1946, 447쪽. 이하 인용 시 괄호 안에 해당 쪽수만 표시.

내 일본인들은 그 이력은 물론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화된 존재로서만 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열망은 식민통치구조에서 일본인에게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며 위계화된 권력 구조에 놓여 있었던 동시에, 각종 근대적 제도와 사회적, 문화적 실천 속에서 일본인과 접촉하며 그들에게 반감과 동시에 매력을 느꼈던 조선인의 식민지 경험 역시 모두 '수난'의 기억으로 동질화하며 망각시켜 버린다. 그런 점에서 『잔등』에는 당대 탈식민적 실천과 상상 속에서 망각되거나 소거되었던 기억들이 비가시화된 공간/존재로 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이후 이 괄호 내부에 대한 재현 양상을 추적하게 만든다.

한국에서 잔류 일본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소 점령군의 송환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sup>6)</sup>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 금융 업계, 대학 등의 공적 영역에서 활동했던 식민자의 송환 전/후 기록, 한반도를 포함하여 만주, 사할린으로부터 귀환한 한 개인의 기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sup>7)</sup>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은 잔류 일본인에 대한 동시기 및 이후 남한 사회의 공론화 양상 및 기억·재현 양상이다. 특히 후자에는 제도적·담론적 차원에서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로새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사실 잔류 일본인을 구체적으로 다룬 텍스트의 양은 많지 않다. 탈식민화와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배체제의 잔여물인 이들은 아예 재현되지 않거나 재현된다 하더라도 신생 조선인의 자기 정립 차원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런 점에서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6) 해방 후 한반도 내 일본인 귀환문제를 둘러싼 점령군의 송환 정책 및 일본인의 귀환 체험에 대해서는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점령군, 조선인, 일본인 3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고.

7) 이에 대해서는 정병욱,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 제64호, 2003; 나카네 다카유키, 『패전의 기억-재조선 일본인의 심성 궤적』, 『일본학보』 제9호, 2004; 황선익, 『해방 전후 재한일본인의 패전 경험과 한국 인식』, 『한국학논총』 제34호, 2010; 이규수, 『식민지 체험자의 기억 속의 '제국'과 '식민지』, 『역사와경계』 제79집, 2011 참고.

생산된 한·일 월경적 서사에 주목하여 그 다층적 양상을 밝히고자 한 김예림의 논문은 주목을 요한다.<sup>8)</sup> 이 글에서는 한국 내 텍스트에 보다 주목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허준의 『잔등』(『대조』, 1946. 1~7.), 황순원의 『술 이야기』(『신천지』, 1947. 2~3.), 염상섭, 『효풍』(『자유신문』, 1948. 1. 1~11. 3.)과 『짓지 않는 개』(『문학예술』, 1955. 6.), 손창섭의 『人間時勢』(『현대문학』, 1958. 11.), 이범선의 『검은 해협』(『조선일보』, 1976. 4. 28~1977. 5. 1.) 등이다. 위의 텍스트들은 시간적 격차와 작가의 경향에 따라 놓여 있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드물게도 잔류 일본인 혹은 이들과의 접촉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젠더적 차원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텍스트는 38이북 ‘일본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 역시 갖는다. 이런 양상은 남한 사회에서 특정 시기와 맥락에 따라 구식민자를 기억하는 특정한 방식이 구성되어 왔음을 유추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해방 직후 잔류 일본인이 한국전쟁 전/후 남한의 문화정치적 구조에서 어떠한 굴절과 변용의 과정을 거쳐 기억되고 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억·재현의 대상으로서 잔류 일본인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식민 기억의 (재)구성을 둘러싼 젠더 정치의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잔류 일본인에 대한 기억이 공산주의 치하 일본인 여성의 수난사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일주의와 반공주의가 착종된 가운데 식민 기억의 (재)구성과 한·일 관계의 상상이 이루어졌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식민화와 냉전질서의 구도 속에서 잔류 일본인에 대한 재현은 한편으로는 식민·해방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기념)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8) 김예림,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1960년대 영화와 “현해탄 서사” 재고』, 『현대문학의 연구』 제42집, 2010; 김예림,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자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제31집, 2011; 김예림, 『중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테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 『상허학보』 제34집, 2012.

다른 한편으로는 후식민의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상상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신생 민족국가가 수립되었던 해방기(1945~1948) 서사를 중심으로, 3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가 심화된 1950년대 및 한일 간 새로운 관계 모색이 이루어진 한일협정 이후 서사를 중심으로, 잔류 일본인에 관한 기억·재현이 각 시기에 따라 변용되고 재구성되었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 2. 식민의 잔여, ‘위장’·‘모방’을 둘러싼 월경(越境)의 기억들

1944년 5월 기준으로 한반도에 거주했던 총 70여만 명의 일본인은 해방 직후 조선에서 축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의 공백에 대한 상상은 조선 사회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신문에는 연일 조선인 귀환자 수와 일본인 송환자 수가 실렸는데, 이 동시다발적인 귀환/송환을 시각화한 통계에는 일본인의 공백을 신생 조선인이 즉각 채울 수 있다는 상상, 일본인이 점유했던 제도, 계급, 재산 등을 조선인이 되찾을 수 있다는 열망이 투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열망과는 달리 한반도에서 일본인의 송환은 즉각 완료되지 않았다. 40년 간 구축되었던 식민네트워크가 일소되기는 어려웠으며, 송환에 필요한 물적 기반 역시 부족했다. 일본인 내부에서도 조선에서 오랫동안 생활기반을 닦거나 일본 본토에 연고가 없는 자, 폐허가 된 본토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조선에서의 생활이 낫다고 판단한 자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내 잔류를 지향하는 집단이 구성되기도 하였다.<sup>9)</sup> 더욱이 미·소 점령군에 따라 38이남/북에 각기 다른 송환 정책이 펼쳐지며, 이들의 송환은 약 1년 간 지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식민 지시기 조선에서 동질적 집합체가 아니었던 일본인들은 해방 이후 그 귀

9) 이연식, 앞의 글, 181쪽.

환 과정에서 시기<sup>10</sup>), 계층(급), 지역, 성별 간 서로 상이한 경험을 한다.<sup>11</sup>) 38이남의 경우, 미군정은 일본 본토와 구식민지 분리 정책 아래 일괄송환·계획송환정책을 시행했다. 무장해제당한 일본군이 우선 송환되었고, 10월 10일부터 민간인이 송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군정은 과거 식민지배체제에서 축적된 정보와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빨리 사회 안정을 이루고자 총독부 일본인 관료 및 전문가를 잔류시킨다. 미군정의 일본인 관료 채용에 대한 조선 사회의 불만은 높아갔으며, 일본인 민간인을 통제하는 정책이 약한 상황에서 조선인이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 역시 열려져 있었다. 조선인에게 잔류 일본인은 민족국가 건설의 타자로서 탈식민적 욕망을 증폭시키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식민주의의 연속에 대한 불만/불안을 촉발시키는 존재이기도 했다. 조선학도대 대원이 일본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삼각지 사건(1945. 9. 10) 이후, ‘총’을 든 일본인 군인·헌병·경찰에 의한 조선인 상해 사건이 반복해서 공론화되었다. 더불어 이들에 의한 ‘테러’, ‘강도’, ‘사기’, ‘주요 서류파기’, ‘허위 신고’, ‘아편’, ‘밀항’ 등의 사건이 이어졌으며, 잔류 일본인은 조선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치안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지게 된 셈이었다.<sup>12</sup>) ‘왜노소탕본부(倭奴掃蕩本部)’라는 이름을 내걸고 일본인을 향해 ‘일본인 완전 철퇴’와 ‘주택 명도’, ‘기관 퇴직’을 요구하며 10월 말일까지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분기·소탕할 것이라는 주장<sup>13</sup>)이나, 인

10) 일본인 귀환은 크게 본격 귀환 시기(1945~47), 공산권 귀환 시기(1948~1950), 대공백기(1951~1952), 속(續)공산권 귀환 시기(1953~59)로 구분할 수 있다.

11)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박스 2010, 234쪽.

12) 이들은 “조선인을 음해하고자”(『비산을 소다로 속여 동포 암해한 일본인-6인 가족도 생명 위독』, 『매일신보』, 1945.9.27.), “건국을 방해하고자”(『권총 탄환 다수 휴대한 일군인 작당 총검거-조선건국 방해가 목적』, 『매일신보』, 1945.10.8.), “조선 사회의 치안이 교란시키고자”(『허위신고한 일인을 처벌』, 『매일신보』, 1945.10.11.)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유재산 소유를 위해 밀항을 시도하거나 아편 밀매를 한 것으로 기사화된다.

13) 『殘溜 日本人에 고함』(倭奴掃蕩本部, 1945년 10월 20일)



종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일본인에게 별을 달거나 완장을 채워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의 과잉된 반응은 그 불만(불안)의 반증이었다.<sup>14)</sup> 이와 같은 잔류 일본인에 관한 공론화는 일본인 송환이 거의 완료되는 1946년 4월을 지나며 서서히 사라진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재현·상상의 영역에서는 해방 직후 일본인과 접촉하거나 분리되었던 경험들이 산출되기 시작했다. 이때 이들은 추상화된 ‘일본인’이라기보다는 그 나름의 외양, 이력, 삶의 상태 등을 지닌 구체화된 인물로 나타났으며, ‘쫓겨 가는 형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패전의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재현의 시간적 차이는 물론 과거 식민통치자였던 일본인을 재현의 대상으로서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1여 년 동안 일본인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공존을 기록한다는 것의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다. 조선인에게 잔류 일본인은 한반도에 공존하는 ‘지금-여기’의 존재라기보다는, ‘기억’의 대상으로서 부재하는 자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 직후 산출된, 조선인에게 응징당해 쫓겨 가는 일본인 형상에는 해방을 즉각적인 사태로 낭만화함으로써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조선인의 탈식민적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즉, 이러한 형상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인 관료가 조선의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일본인’=‘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졌던 현실, 혹은 귀환을 준비하며 대다수 일본인이 패전의 일상을 영위했던 현실 등을 덮으며 해방을 낭만화한 결과인 셈이었다. 그렇기에 일본인 송환이 완료된 이후, 실제로 ‘부재하는 자’가 된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기억의 대상으로 소환되어 구체화된 인물로서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담론 공간에서 공론화되었던 일본인이 주로 관료 혹은 범죄자 ‘남성’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후 재현되었던 일본인은 주로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젠더적 차이는 잔류 일본인을 기억

14) 『다 가지면 앞으로 반년-늦어지는 일본인 송환』, 『자유신문』, 1945.10.31.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기억을 통해서 무엇이 구성되는지 등을 고려하게 한다.

황순원의 『술 이야기』(『신천지』, 1947.2~3.)는 해방 직후 38이북 지역을 배경으로 적산처리문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 간 갈등을 다룬 텍스트이다. 식민지시기 일본인이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주임 서기로 근무했던 주인공 준호는 해방 이후 ‘적산은 조선 민족·노동계급의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조장 임시 대표직을 맡아 적산을 지킨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 민족적/계급적 차이로 그 내부를 볼 수 없었던 미지의 장소였던 공장 사택에 임시 거처하게 된다. 처음 적산가옥에 들어선 준호는 마치 처녀지를 탐색하듯 이곳저곳을 세심히 관찰하며 목록화한다.<sup>15)</sup> 해방은 준호에게 일본인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은 동시에 그것에 대한 시선의 권력을 획득하는 기점이 된다. 그리고 그 시선의 대상에는 일본인 역시 있었다. 준호는 적산가옥에서 잔류 일본인을 발견하고, 그를 시선의 구도 속에서 대상화한다. 이해령에 따르자면 식민지시기 일본인은 ‘부채하는 현존’으로만 재현될 수 있었다. 식민화란, 식민자를 식민자로서 말해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은폐된 이데올로기로서의 ‘식민주의’를 수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식민자와 그 지배를 말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식민지 재현 체계의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sup>16)</sup> 그렇다면 반대로 해방은 식민자와 식민주의를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 물론 그 구체화는 앞서 언급했듯 잔류 일본인이 실제 한반도에 부채하며 기억의 대상이 된 이후에야 이루어졌지만,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시선·발화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제국-식민지 체제의 해체가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해 조선인이 시선의 권력을 획득한 상황은 주로 보

15) 준호는 적산가옥 외부에서부터 가장 깊은 안쪽까지 들어서면서 집 안 이곳저곳(현관, 보통객실, 온돌방, 하녀방, 양실, 응접실, 물치간, 쪽방, 안뜰 등)과 그곳에 놓여 있는 각종 물건들(매화나무, 현판, 사진, 족자, 돌사람 등)을 꼼꼼하게 탐색하고 그 외양을 묘사한다.

16) 이해령,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대동문화연구』 제78집, 2012, 317~349쪽.

는 주체로서의 조선인 남성/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일본인 여성이라는 젠더적 위계화를 기반으로 재현되었다. 지배인과 그의 아들이 각각 병사(病死), 전사(戰死)하여 과거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남성이 부재한 것으로 설정된 가운데, 적산가옥에 남아 있는 일본인은 다른 아닌 지배인 부인이다. 이 여성을 발견한 준호는 그의 외양을 바라보며 꼼꼼하게 묘사<sup>17)</sup>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과거 ‘제국 일본=남성’/‘식민지 조선=여성’이라는 젠더적으로 위계화된 권력 구도의 역전에 대한 상상의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계화는 국가나 민족을 남성성으로 대체하는 남성중심주의적 민족주의로부터 나온 것으로, 해방의 순간을 남성(의 힘)의 회복으로 구성했던 해방기 서사와 공통점을 지닌다.<sup>18)</sup>

이후 준호는 지배인 부인에게 적의와 분노, 반감을 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까지 여기게 된다. 이는 지배인 부인이 임시로 적산가옥에 머무르는 대신 준호에게 제공하기로 한 ‘일본식 일상’ 때문이었다.<sup>19)</sup> 준호는 지배인 부인을 통해 과거 식민자의 사적 영역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점차 과거 지배인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한 준호는 적산을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욕망하게 된다. 급기야 그는 과거 빈 몸으로 조선에 와서 양조장 사장이 된 ‘나까무라의 입신출세담’을 자신의 것으로 환치하며 일본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결국 소설은 공장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준호가 파국을 맞는 것으로 끝난다. 이 파국

17) 일본인 여성의 외양은 준호에 의해 “노년기에 들어서 탄력 없는 털색 살덩이”, “살을 찢 듯하면서도 여전히 시퍼런 살색”(황순원, 『술 이야기1』, 『신천지』, 1947.2, 145쪽), 혹은 “흰자위와 검정자위가 서루 풀려 섞인 듯 힘없이 검기만 한 눈”(위의 글, 149쪽) 등으로 묘사된다.

18) 이는 식민지시기를 남성(의 힘)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수난 받는 시간으로, 해방의 순간을 ‘탈식민 남성성의 회복’으로 구성했던 해방기 서사의 젠더화된 문법이 조선인/일본인 간 관계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혜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19호, 2008, 241~251 참고.

19) 지배인 부인은 준호에 의해 탈성화된 노파의 모습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그가 적산가옥에서 과거 지배인의 부인으로서 담당했던 일상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준호와 지배인 부인의 관계는 젠더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도정에서 일본인과의 접촉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적 영역을 재생산하는 여성으로 젠더화된 일본인과의 접촉은 탈식민의 기획을 오염시키는 불온한 접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본인 여성이 ‘불온한 존재’로 설정되는 가운데, 탈식민의 주체로서 신생 조선인의 초상이 공적 영역에서 그려지는 과정에서 망각되어야만 했던, 과거 일본인을 모방하고자 하지만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또 다른 초상은 기억·재현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의 잔여이자 적산가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채 과거 식민자의 일상을 재생산하고 있는 이 일본인 여성은 기실 식민지시기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모방 욕망이 외화된 존재인 셈이다.

한편, 분노나 적의 혹은 그것에 잠재하고 있을 욕망과 불안 등의 요소가 모두 제거된 채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일본인은 합법적으로 남한 사회에 잔류/귀화가 허용된 일본인 여성에 한정되었다. 1948년 『자유신문』에 연재된 염상섭의 장편소설 『효풍』은 1947년을 배경으로 해방기 남한의 미래상에 대한 작가 나름의 정치적 모색을 제시한 작품이다. 주요 인물인 혜란, 병직, 화순, 베커는 미국인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염두에 두고 ‘조선적인 것’을 전시하는 ‘골동품점 경요각’이나 미국 문화가 혼종적으로 향유되는 ‘댄스홀 스왈로’를 돌아다니며 제국주의/민족주의, 좌/우 프레임 안에서 갈등·경합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주요한 장소 가운데에는 ‘취송정’이란 술집 또한 있다. 취송정은 식민지시기 “화양절충으로” “웬만한 요릿집이었거나 호텔이었던”<sup>20)</sup> ‘가네마스(金松)’가 해방 이후 그 이름만 달리한 것으로, 과거 제국의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문화/자본이 해방 이후 변형되어 안착된 장소이다. 이 취송정에서 혜란, 병직, 화순, 베커를 비롯하여 이들의 윗세대는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이곳에서 이들과 교류하는 자 가운데에는 취송정의 마담 일본인 여성 가네코(金子)도 있다.

20) 염상섭, 『효풍』, 실천문화사, 1998, 25쪽. 이하 인용 시 괄호 안에 해당 쪽수만 표시.

흥미롭게도 조선인들은 거네코의 이력을 두고 약간의 빈정거림을 할 뿐, 적의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갖지는 않는다. 오히려 “혜란이 마담 같고 마담이 혜란 같다는”(28) 언급에서 나타나듯, 남한의 미래상을 암시하는 조선인 여성과 식민지시기 잔여이기도 한 잔류 일본인 여성은 민족 간 갈등이나 경합 없이 겹쳐지기까지 한다. 이 같은 설정은 해방 이후, 일본인이 민족의 적으로 획일화되던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지만, 남한 사회 내 거네코의 자연스러운 안착은 오히려 남한에서 잔류 일본인이 통용·관리되었던 방식을 드러내 준다.

1947년 남한에서 ‘취송정’을 기반으로 조선인과 교류하는 거네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가 식민지시기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처’라는 점, 그리고 그 스스로 조선 여성을 모방하며 “일본사람으로 조선사람이 되”<sup>21)</sup>어 살아간다는 점이다. 거네코를 두고 조선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아직도 일본사람이 남아 있어요? / 응, 남편이 조선사람이거든”(26)이라는 문답에서 드러나듯, 그녀는 조선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sup>22)</sup>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은 법적 차원에서 보장받는 것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신생 민족국가의 잠재적 소속 대상자이기도 했다.<sup>23)</sup> 해방 직후 남한에 있던 약 27만 명 중 861명만이 남게 되는 1946년 4월 경, 미군정에 의해 잔류가 합법화되었던 일본인은 과거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에 한해서였다.<sup>24)</sup> 반대로 해방 이후 한반도 내 조선인 아내를 둔 일본인 남성의 잔류

21) 앞의 책, 27쪽.

22) 조선인 유모의 손에 자란 거네코는 조선어에 익숙하며, 학창시절에는 M백화점 점원으로 있던 임평길(林平吉)이란 조선인 청년을 보고 호감을 느껴, 일본인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 약혼자가 징집되자 그는 아예 M백화점에 취직하였고, 부모의 반대를 꺾고 임평길과 결혼한다. 이후 해방/패전을 맞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가 남긴 적산으로 요릿집을 사서 취송정을 만든다.

23) 김석란, 『재한일본인 아내의 국적에 관한 연구-해방이전 결혼자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88집, 2007 참고)

24) 해방 이후 계획송환정책을 펼치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송환을 시행하였

는 불허되었는데, ‘국적’=‘호적’을 기준으로 그들은 탈식민 민족국가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할 불법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식민지시기 일본인 남성/조선인 여성 간 내선결혼의 비율이 조선인 남성/일본인 여성 간 비율보다 높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해방 이후 조선인/일본인 부부의 ‘가족-됨’, ‘(잠재적) 국민-됨’에 나타나는 젠더적 차이는 남성중심주의적 재구조화를 수반했던 국민국가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차원과 더불어 가네코가 조선 사회에서 ‘안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한복을 입고 조선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며, 조선 여성을 모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sup>25)</sup> 식민지 후반기, 내선결혼을 다룬 소설에서 식민지 남성의 결핍과 욕망이 투영된 장면 중 하나는 일본인 여성이 조선 여성처럼 한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었다.<sup>26)</sup> 해방 이후 남한에서 “쪽발이 왜녀가 진술 버선을 몽글러신”(26)고 사는 모습에 조선인 남성들이 호기심과 통쾌함을 느끼는 장면에는 과거 식민/피식민 간 위계화된 권력관계의 역전과 더불어 상실된 조선 남성성의 회복이라는 탈식민적 상상이 투영되어 있다.<sup>27)</sup>

---

던 미군정청은 1. 식민지시기 조선인 남성과 정식으로 결혼한 자, 2. 호적상의 수석의 8.15 전에 된 자, 3. 만일 아니되었다 하더라도 정치라 인정하는 일본인 여성에 한해 잔류/귀화를 합법화했다. (『외무처, 조선남자와 결혼한 일본여성의 잔류허가계출 요망』, 『동아일보』, 1946.5.21.) 1947년 4월 남한 내 총 861명의 일본인 가운데 820명은 조선인과 결혼한 여성들로 잔류/귀화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자들이었고, 전문기술자 30명과 일본인세화회 관계자 11명은 임시 잔류가 허용된 이들이었다. (『민정장관 안재홍, 군정청기구개혁문제 등에 대해 회견』, 『동아일보』, 1947.4.3.)

25) 이는 반대로 잔류를 선택한 ‘일본인 처’ 가운데 조선 여성에 대한 모방이 실패했을 경우, 법적으로 잔류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조선 사회 내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재한일본인처 모임 ‘부용회’에 소속된 일본인 여성 가운데 상당수는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없었음을 증언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석영, 『일본인 처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문학』, 2001년 가을 참고.

26) 조운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호, 2009 참고.

27) 이러한 젠더적 위계화의 효과는 『효풍』과 동시기 발표된 염상섭의 『모략』(1948)과

그러나 이 위험하지도 불온하지도 않은 가네코는 실상 취송정을 찾는 조선인/미국인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남편이 “기생첩을 떼어 들이고 거드러거리며”(33) 곁에 없는 상황에서 가네코는 때로는 조선인 청년 병직이나 미국인 청년 베커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혜란에게 병직의 월북 비용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별다른 결과를 낳지 못한다.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 미국이 등장한 상황에서 과거 제국-식민지 체제의 잔여인 가네코가 조선인 청년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뿐이다. 그러나 취송정을 찾은 조선인들은 가네코를 대면했을 때, 기억의 주체가 되어 가네코의 해방 전/후 이력을 추적해간다. 즉, 그녀는 조선인들에게 식민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존재인 셈이다. 통감부 시대 조선으로 이주 온 식민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나 식민 2세대로 ‘게이조’를 누비며 부유하게 살았던 과거나 해방 이후 부모가 남긴 적산으로 취송정을 차린 이력 등은 ‘식민의 후일담’처럼 언급된다. 그런데 더불어 그의 남편인 임평길(林平吉) 또한 회자된다. 가네코의 데칼코마니와도 같은 인물인 임평길은 식민지시기 가네코와 결혼한 후, 징병제를 피하고자 ‘길야평길(吉野平吉)’로 창씨개명을 하고, 이후 가네코 집안의 데릴사위로 들어가 아예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갔던 인물이다. 그는 해방되자 “‘길야’라는 성을 떼어버리고 임가 행세를 하”(33)며 조선인으로 다시 탄생해 적산 등을 보며 살아간다. 과거 임평길이 일본인을 모방하면서 식민지 조선을 살아갔다면, 해방 이후에는 가네코가 조선인을 모방하면서 남한을 살아간

---

의 비교를 통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모략』은 과거 만주국에서 제국의 ‘이등국민’으로 거류했던 조선인이 해방 직후, 중국인/일본인 사이에서 새롭게 직면한 애스닉 간 갈등을 제시한다. 소설은 중국인의 분노를 조선인 편으로 돌리고자 ‘태극기나 ‘흰 옷’을 통해 조선인으로 위장하고 범죄를 저지른 한 일본인 남성을 조선인 자치단체가 검거하여 응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효풍』과 『모략』은 ‘1948년 남한/해방 직후 만주’라는 시·공간적 차이를 보이지만, 이 차이는 잔류 일본인이 기억되는 방식의 차이이기도 하다. 조선인을 모방하는 일본인 여성/남성이 각각 1948년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게 편입하거나 해방 직후 적대적 대상으로 배제되는 구도는 기본적으로 탈식민 민족국가에 대한 상상이 젠더적 위계화를 수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조선인/일본인의 경계를 월경했던 가네코와 임평길의 이력은 ‘가해자로서의 일본인’/‘피해자로서의 조선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과거 식민자/피식민자 간 착종되었던 관계를 환기시킨다.

### 3. 38이북 ‘일본인 수용소’와 냉전적 상상력

해방 직후, 38이북에서 소군정은 미군정 및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고 전후 소련의 재건과 신생 북한의 노동력 충원을 위해 일본인 송환거부 및 집단수용 정책을 펼쳤다. 일본인 전문가 집단이나 민간 남성은 노동력으로 차출되었으며, 과거 군인·경찰·공직자로 활동한 자들은 모두 투옥되거나 시베리아 등지로 압송·억류된다. 남성 부재·국가 부재 상황을 맞은 약 30만 명의 일본인 노약자와 부녀자 집단은 1946년 5월까지 학교, 사찰, 지역조합 창고, 신사 등을 개조한 수용소에서 집단수용 생활을 경험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1946년 봄부터 소련군의 목인 아래 집단 남하한다. 일본에서 전후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상을 만드는 데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했던 ‘인양 서사’에서 고난의 경험으로 강조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수용소 생활이었다.<sup>28)</sup> 수용소는 이들이 조선인·소련군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아와 질병, 일본인 내부의 갈등, 소련군의 물리적·심리적 폭력 등으로 수난받았던 장소이기도 했다.<sup>29)</sup> 수용소 내 수용

28) 1946년 4월 소련군의 목인 하 집단 남하하기까지 수용소에서 1945년 겨울을 넘기던 일본인 중 2만 5천 명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된다. 일본인 여성의 수용소 체함에 대해서는 아사노 도요미, 이길진 옮김, 『살아서 돌아오다-해방공간에서의 귀환』, 숲, 2005; 이연식, 『패전 후 한반도에서 돌아간 일본인 여성의 귀환 체험-남북간의 지역차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7, 2009 참고

29) 38이남/북에 따라 그 구체적 성격은 판이하였지만, 미·소 점령군이라는 의사(quasi)-국가 권력, 과거 조선총독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원호조직 ‘일본인 세화회(世華會)’, 조선군 사령관 혹은 인민위원회와 같이 조선인 세력 간 관계에서 만들어진 일본인 수용소는 구식민자이자, 패전국 국민, 난민이 된 일본인을 관



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현실적 차원과는 별도로, 다수의 인양서사에서 38이북 수용소가 여성들의 장소로 젠더화되어 제시되며 강간예의 공포가 강조되었던 것은 인종·계급·지역을 막론하고 국가 부재의 상황에서 여성이 이중·삼중의 마이너리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지점에 대한 반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 긴장 상태는 공산군에게 수난받은 경험으로 기억되며 냉전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였다.<sup>30)</sup> 일본인 귀환자들의 한반도 내 수용소에 대한 기억은 38이북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38이남 수용소는 그 고난을 거쳐 발견한 ‘불빛’과도 같은 공간으로 언급된다.<sup>31)</sup>

38이남/북 일본인 수용소를 둘러싼 이 같은 상이한 심상지리는 그러나 남한의 경우 조금 상이했다. 잔류 일본인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공산군의 전사(前史)와도 같은 민족의 적으로 기억되었지만,<sup>32)</sup>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과 사랑, 슬픔과 같은 정동을 나누었던 개인으로도 언급되었다.<sup>33)</sup>

---

리·통제하는 공간이었다. 이민족 월경자들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국가 운용의 핵심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일본인을 조선인으로부터 격리시켜 통제하는 이 ‘외국인 수용소’는 송환의 제도적 절차인 동시에, 민족국가 수립에의 제도적 장치(Dispositif)였다.

30) 일본의 경우, ‘인양(引揚)’이라는 용어로 명명되었던 이들의 귀환은 당사자의 의지로, 혹은 일본 사회의 요청으로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기억되고 재현되었는데, 그 기록들은 과거 ‘외지인’이었던 ‘귀환자’의 정체성을 정립하거나, 과거 식민지배자로서의 경험을 망각하고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상을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자아낸 바 있다. 박광현, 『인양 서사란 무엇인가』, 『플랫폼』 제20호, 인천문화재단, 2010.3·4.

31) 해방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 수용소가 38이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 수용소를 비롯해 국경 근처에 총 10개의 수용소가 있었다. 더불어 그곳들은 단순히 송환의 제도적 장치만이 아니라 미군정이 ‘방역’, ‘방첩’ 차원에서 남하 일본인을 관리·통제하는 성격을 띠었다. 『日本戰災者收容所 議政府에 設置』, 『동아일보』, 1946.6.12.)

32) 이는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적 관점으로 식민지 및 해방의 순간을 기억하는 서사에서 나타난다. 해방 직후 일본인은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과 ‘민족의 적’이라는 층위에서 겹쳐지며, ‘쫓겨 가는 일본인’ 형상은 공산군의 전사(前史)이자 이들의 ‘패망할’ 미래로서 재현되었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로는 주요한의 ‘이것이 꿈이라면」(『사상계』, 1955.2.)과 박종인의 ‘물망초」(『사상계』, 1955.8.) 등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잔류 일본인 여성들이 수용되었던 부산 수용소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현해탄을 초월한 한일 간 사랑이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비극적인 이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개인사적 비극에 대한 대중적 감수성과 남한 내 합법적 잔류 일본인이 모두 여성들이었다는 사실, 조선/일본 관계에 대한 역전된 젠더화의 상상, 냉전 체제 아래 한일 간 친연성 상승 등의 차원에서 구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국제적십자사를 매개로 이루어진 북·일 양국 간 비/공개적 접촉으로 재일 조선인 북송과 재북 일본인 송환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1955년 4월에 약 2,061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잔류 일본인 중 총 36명이 일본으로 송환된다.<sup>34)</sup> 재산 청구권 및 어업 문제, 오무라 수용소 문제 등을 놓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민감했던 남한에서 재북 일본인 송환은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당시 비가시적 공간이었던 38이북에 대한 관심 속에서 부상한다. 일본인의 귀환 체험, 월남자의 증언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드러났던 재북 일본인이 제국-식민지 체제의 미해결된 문제로 전면 가시화되었을 때, 이후 송환된 일본인의 북한에 관한 기록은 공산국가에 억류되었던 고난의 기록이라는 반공적 맥락으로 남한 사회에 수용되었다.<sup>35)</sup> 더불어 총 36명의 송환자 가운데 35명이 여성이라는 압도적 비율과 훨씬 더 많은 일본인 여성이 남아 있을 거라는 추측 속에서 38이북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일본인 여성이 헐벗은 삶을 살고 있을 공간으로 여겨졌고, 일본인 수용소는 그 통제의 상징적 장소이자 여성 수난의 장소로 상상되기 시작했다.

염상섭의 『짓지 않는 개』(『문학예술』, 1955.6.)는 1945년 겨울, 38이북 지역에서 조선인 남성이 소련군 및 일본인 여성들과 접촉한 에피소드이

33) 「내가 본 출입처: 운수편」, 『민주신보』, 1950.12.28.

34) 최영호, 「전후 북일 외교관계의 형성과정」,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2002, 164쪽.

35) 「日인이 본 北韓: 거리, 거리에 乞人사태」, 『조선일보』, 1956.4.25.

다. 적산문화기관의 임시 담당자로 활동하는 주인공 나는 “좌익계열이 차츰 드세어가서 일이 될상스럽지 않”<sup>36)</sup>으리라 예상하며 월남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담담하게 관찰하고 있지만, 실상 월남이란 방향성이 정해진 가운데 그 관찰은 냉전적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세력에 수난 받는 일본인을 미약하게나마 조력하거나, 그들의 수난을 동정하는 나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일본인 부녀자 수용소를 둔 나는 어느 날 밤, 횡설수설하며 길을 물어보는 소련군을 돌려보내고 다음 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소련군이 “닭도둑처럼 일본여자만 모아놓은 데로 야습을 하러 다니는” 상황에서 “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나 민족적 감정으로나”(16) 조선인이라면 당연히 일본인 수용소의 위치를 소련군에게 알려주리라 여겼지만, 예상과는 달리 자신들을 보호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였다. 수용소 내부는 ‘나’에게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지만, 일본인 여성들의 말을 통해 그 내부 사정을 짐작한 ‘나’는 소련군의 무법적 장소에서 머물러야 할 그들의 상황을 동정한다. 이후 ‘나’는 수용소를 나와 소련군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일본인 여성을 소련군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련군을 “계집아이 둘을 낮 번, 밤 번으로 끌어들여 놓고 쥐죽은 듯이 자빠져”<sup>37)</sup> 있을 모습으로 상상하고 그에게 반감을 느끼는 한편, 일본인 여성에게서 “해말간 예쁘장한 모습”과 함께 “우울한 기색”(19)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빠진다. 과거 “지방 법원 판사”였던 한 식민지배자 일본인 남성이 해방 이후 시베리아로 압송되었다가 소련군의 시중을 드는 딸의 도움으로 기적과도 같이 돌아왔을 때에도, ‘나’는 구식민자의 고난에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초라하고 무력한 그의 모습에 오히려 연민을 느낀다. 이처럼 냉전적 상상력을 통해 식민/해방의 기억이 재구성되는 가운데 소거되는 것은 식민지 경험 그 자체이다.

36) 염상섭, 『짓지 않는 개』, 『문학예술』, 1955.6, 17쪽. 이하 인용 시 괄호 안에 해당 쪽수만 표시.

37) 위의 글, 20쪽.

손창섭의 『人間時勢』(『현대문학』, 1958.11.) 역시 일본인 여성의 수난사로서 한국전쟁 이후 냉전적 상상력을 통해 식민/해방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후 일본 쪽 전세가 악화되자, 만주 일본인 관사촌 내 일본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통치했던 중국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일본인 수용소가 있는 하얼빈을 향해 떠난다. 이 과정에서 야스꼬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아이 하나만을 데리고 홀로 길을 나선다. 그러나 중국인 남성에게 발각된 야스꼬는 이후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처럼 부락민들의 구경감이”<sup>38)</sup> 되거나, “인육시장”(77)의 상품으로 팔리며 중국인 남성들에게 성적 린치를 당한다. 간신히 중국인으로부터 탈출한 그녀는 소련군에게까지 성적 린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아이마저 잃게 되면서 “숨이 붙어 있으면서도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79) ‘산-죽음’이 된다. 과거 일본인/조선인=집합적 유죄/희생자 관점에서는 괘호로 쳐진 채 기억·재현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도정은 과거 일본인에 의해 “보잘 것 없는 열등 국민이요 견마와 같이 흑사 당하는 피지배자”로 살았던 중국인의 복수극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sup>39)</sup>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보호 기능을 대체한 수용소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외부에서 죽음의 가능성에 노출된 ‘난민’의 삶으로 여겨지며 반전(反戰)을 주장하는 보편주의적 휴머니즘 맥락에서 읽힐 가능성이 높았다.<sup>40)</sup> 그러나 사실상 이 휴머니즘의 구도 속에서 타자화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냉전적 타자로 등장한 중국인·소련인으로, 냉전적 상상력을 통해 일본인 여성 수난사는 재구성된 것이었다.

38) 손창섭, 『인간시세』, 『현대문학』, 1958.11, 65쪽. 이하 인용 시 괄호 안에 해당 쪽수만 표시.

39) 이 소설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조선인 남성은 애초에 부재한다는 점이다. 부재하는 조선인 남성에게는 일본인 여성의 고통스러운 수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없으며, 반대로 조력할 의무도 없다.

40) 야스꼬의 항변에 대해 서술자는 “민족적인 감정의 발악만은 아니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분노였다. 운명에 대한 모성의 도전이었다. 따라서 신에 대한 인간의 항의이기도 했다.”(67)라고 언급한다.

염상섭의 『짓지 않는 개』와 손창섭의 『인간시세』에 나타나는 ‘수난받는 일본인 여성’상은 한국전쟁 이후, 식민지 경험에 한국전쟁 경험이, 반일주의에 반공주의가 덧씌워진 채 식민 기억이 재구성된 결과이다. 특히, 재북(在北) 일본인 송환이 이루어지며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더 선명하고 동시대적인 적이 눈앞에 부상한 상황에서 식민지 경험은 ‘먼 과거’으로 망각되어 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들에서 조선인 여성이 부재한다는 점, 다시 말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수난받는 여성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다른 층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전후 강력한 반공주의와 더불어 여전히 일본을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일주의가 담론장을 구성했던 1950년대, 식민/해방에 관한 기억은 이 두 담론이 착종된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이 같은 상상은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문화자본 또한 한/일 국경을 넘어 유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던 1960년대, 국제연애·국제우정·국제가족 등의 모티프를 기초로 한/일 간 월경적 서사로 이어졌다.<sup>41)</sup> 이범선의 『검은 해협』(『조선일보』, 1976.4.28. ~1977.5.1.)은 해방 직후와 1970년대를 교차시키며 조선인 남성/일본인 여성 간 만남을 다룬 소설로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15 특집 TV드라마’로 극화되기도 했다. 주인공 한동욱은 식민지 후반기 학병 징집을 피해 숨은 고향에서 일본인 여성 미치코와 사랑에 빠지며 ‘착한 일본인’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해방 이후 그는 자치대 대장을 맡아 마을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데, 특히 미치코를 포함한 일본인을 조선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들을 통제하고자 일본인 수용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좋은’ 일본인과 ‘나쁜’ 일본인이 공존하는 수용소 내 일본인의 삶은 의복·음식에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허준의 『잔등』(1946)에서 감춰졌던, 그러나 염상섭의 『짓지 않는 개』(1955)에

41) 이에 대해서는 김예림의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1960년대 영화와 “현해탄 서사” 재고』, 『현대문학의 연구』 제42집, 2010, 563~608쪽 참고.

서는 일본인 여성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혀졌던 일본인 수용소 내부는 조선인 통치자가 등장한 이범선의 『검은 해협』(1976)에 이르러서야 전면 가시화된 셈이다. 그러나 소련군의 등장 이후, 일본인 여성에 대한 소련군의 성적 린치가 횡행하여 치안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이를 막을 물리적 힘이 없는 한동옥은 결국 미치코를 남기고 월남을 선택한다. 소련군의 등장은 수용소 내 일본인 여성뿐만 아니라, 조선인 남성에게도 ‘국민-됨’의 층위에서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제시되는 것이다.<sup>42)</sup> 이후 한동옥은 20여 년간 그를 그리워했던 미치코와 1970년 서울에서 다시 만나며, 이들의 만남은 “당당한 주권국가로 대등한 처지”<sup>43)</sup>에서 이루어지는 한일수교의 메타포로 제시된다. 이는 소련군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채 ‘국민-됨’이 중지되었던 한동옥이 월남을 통해 그것을 완성한 것에 관한 확인이기도 하다. 더불어 국민국가 남한이 식민지시기 경험 및 트라우마적인 냉전 체험에서 벗어나 성숙한 ‘남성’이 되었음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동옥의 월남 이후, 미치코를 비롯해 수용소 내 여전히 남아 약 반년간 38이북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언급되는 일본인들의 삶은 더 이상 재현되지 않고, 괄호에 처진다. 이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장소인 수용소 운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질서와 정상의 세계 남한으로의 이동을 통해 조선인 남성이 궁극적으로 주권자이자 국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수용소 혹은 집단 수용된 존재들은 해방기 때처럼 다시금 비가시적 공간/존재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42) 1945년 8월 15일 직후를 소련군의 진주와 그로부터 수난 받은 일본인(여성)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방식은 비단 일본으로 돌아간 식민지배자의 기억에서만 아니라 조선인에 의한 기억을 통해서도 구현되는, 한국전쟁 이후 일정 부분 스테레오 타입화된 방식이다. 해방 당시에 대한 한 월남자의 회고에서 해방은 소련군에게 치안 권력을 빼앗기고, 소련군에 수난 당하는 일본인 여성을 무력한 일본인 남성 대신 일시적으로 구해주었던 경험으로 기억된다. 월남은 그에게 소련군에 의해 미완으로 남은 탈식민의 기획을 완성하는 것으로 실행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진, 『언론투쟁이 뛰냐, 신문사를 부수는 거지』, 문제안 외 22명 지음,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46~47 참고.

43) 이범선, 『검은 해협』 하, 태창문화사, 1978, 253쪽.

#### 4. 결론을 대신하여: (불)가능한 표상들

이 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해방의 순간이 기억되는 가운데 잔류 일본인이 서사화된 방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잔류 일본인과 접촉하거나 분리되었던 기억은 남한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후(戰後)’를 통해 (재)구성되고 형성되었다. 탈식민 신흥 민족국가 수립 과정과 냉전 질서 하 후식민의 문화·정치적 구조 속에서 잔류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경험은 식민/해방을 기억하는 모티프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젠더화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접촉의 기억들은 탈식민지화와 냉전질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축을 서로 오가거나 통합하며 다양한 층위들을 만들어냈다. 식민지시기 하나의 제국 안으로 식민지가 통합되어 가는 상황에서 각종 제도와 사회적·문화적 실천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했던 일본인을 해방 이후 대면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조선인을 지배해왔던 그들은 대체 어떤 존재였으며 반대로 조선인은 그들의 통치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등에 관한 물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적대라는 탈식민적 정념에 의해 괄호로 쳐졌으며, 잔류 일본인은 집단적 유죄 관점에서 가해자이자 민족의 적으로 스테레오 타입화되어 동질화되고 추상화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송환의 완료된 이후, 해방 직후 일본인과 접촉하거나 분리되었던 경험들은 조금씩 산출되기 시작했다. 이때 이들은 추상화된 ‘일본인’이라기보다는 그 나름의 외양, 이력, 삶의 상태 등을 지닌 구체화된 인물로 재현되었으며, ‘쫓겨 가는 형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패전의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조선인에게 이들은 한반도에 공존하는 ‘지금-여기’의 존재라기보다는, ‘기억’의 대상으로서 부재하는 자여야만 했던 것이다. 여성으로 젠더화된 잔류 일본인은 조선인(남성)의 탈식민의 열망을 오염시키는 불온한 존재로 제시되거나 혹은 조선인 여성을 모방하는 ‘일본인 처’의 모습으로, 그 불온성이 모두 제거된 채 식민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후일담 그 자체로서 제시된다. 한반도에서 패전의 일상을 영위하거나 합법적으로 잔류를 선택한 이들은 과거 식민자/피식민자 간 착종되었던 관계를 비롯하여 탈식민의 열망 아래 망각되었던 조선인의 또 다른 얼굴을 되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냉전적 상상력을 통해 식민/해방의 순간이 다시금 기억되는 가운데, 잔류 일본인은 더 이상 식민(주의)의 잔여로서가 아니라, ‘일본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공산주의 세력에 수난받는 피해자로서 재현되기 시작했다. 반일주의와 반공주의가 착종되어 있는 이러한 서사에서 식민자와 접촉·분리되었던 해방의 순간은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에 한반도가 오염되기 시작한 순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의 대타항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구성되며 서사의 여러 층을 만들어냈다.

제국-식민지 체제의 붕괴 및 국민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동아시아에는 국적국 보호 밖에 놓인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에의 위협에 처했던 ‘난민’ 역시 발생했다. 과거 식민자/피식민자의 경계를 넘어 이 ‘난민’들이 직면했던 현실적 조건들은 국민국가 시스템 그 자체가 생산해내는 것이기도 했다. 국가(State)에 따라 개인의 삶의 상태(state)가 결정되었던 것은 비단 조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구식민지, 그것도 일본인 송환 정책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던 지역에서 패전을 맞은 일본인의 경우, 계급·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 보호가 부재하고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인양 서사’에서 전후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상을 만들며 식민지배자로서의 경험을 망각하는 물질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패전 직후 일본인이 처했던 현실이 전후 국가 재건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떻게 ‘인양 서사’에 왜곡되어 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실제 구식민자이자 난민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인 잔류 일본인이 과거 식민통치를 받았던 피식민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일 것이다.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해방 직후 구식민자와의 접촉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작업은 비단 한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중국, 대만을 비롯하여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지배 아래 있었던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체로 해방을 기억/기념하는 전략적 방법이다. 이를 구식민자에 대해 시선의 권력, 발화의 권력을 획득한 피식민자의 자기 구축 방법으로 더 확장시키자면, 동아시아 제국/식민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구(舊)제국주의 시대가 종결됨에 따라 유럽 각 지에서도 발생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에 해방 직후 식민자와의 접촉에 대한 피식민자의 경험이 이후 기억·재현되었던 양상은 전후 보편적 현상이자 서로 다른 맥락에서 차이를 지니는 개별 현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방 직후 구식민자와의 접촉에 대한 기억·상상이 제국-식민지 체제에 대한 경험 혹은 한국전쟁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떤 맥락과 국면에서, 어떤 굴절과 변용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지 다각도로 살피는 작업이다. 이는 패전을 맞은 잔류 일본인의 삶 혹은 그들과의 접촉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과정이 비단 식민지배자로서 일본인의 다양한 얼굴뿐만이 아니라, 조선인의 얼굴 역시 다각도로 되비춰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해방 이후 과거 조선을 통치했던 일본인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식민지시기 조선인은 과연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적(self-reflexive) 물음을 던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젠더적으로 위계화된 탈식민적 상상력에 의해 역설적으로 촉발되었고, 냉전적 상상력을 통해 소거되었던 이 물음은 또 다른 층위와 함께 새롭게 제시되어야만 한다. 잔류 일본인에 대한 다양한 기억·재현 속에서 여전히 괄호로 쳐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잔류 일본인 남성과의 구체적인 접촉의 기록일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인 여성과 결혼했던 일본인 남성이나 공적 영역에서 식민지배자로 활동했던 식민지배권력층 일본인 남성 등은 젠더적으로 위계화된 탈식민적 상상력, 냉전적 상상력에 의해서도

쉽게 기억·재현되지 않는다. 해방의 기억 속에서 이들이 공백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쫓겨 가는 형상’으로 동질화된 채 추상화된 측면은 반대로 식민지시기 조선인의 초상을 다각도로 되비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각하게 한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망각된 기억을 재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민주신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문학예술』, 『신천지』, 『현대문학』

김만선, 『압록강』, 깊은샘, 1989.

염상섭, 『삼팔선』, 금룡도서주식회사, 1948.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이범선, 『검은 해협』, 태창문화사, 1978.

허 준, 『잔등』, 을유문화사, 1946.

### 2. 2차 자료

마루카와 데쓰시, 장세진 옮김, 『냉전문화론-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너머북스, 2010.

문제안 외 22명 지음,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사와이 리에, 김행원 옮김, 『엄마의 게이조,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아사노 도요미, 이길진 옮김, 『살아서 돌아오다-해방공간에서의 귀환』, 솔, 2005.

최영호,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2002.

김석란, 『재한일본인 아내의 국적에 관한 연구-해방이전 결혼자를 중심으로』

- 로, 『일어일문학』 제88집, 2007, 339~351쪽.
- 김예림,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1960년대 영화와 “현해탄 서사” 재고』,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2010, 563~608쪽.
- \_\_\_\_\_,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자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제31집, 2011, 45~87쪽.
- \_\_\_\_\_, 『중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 『상허학보』 34집, 2012, 173~213쪽.
- 나카네 다카유키, 『패전의 기억-재조선 일본인의 심성 궤적』, 『일본학보』 제9호, 2004, 93~105쪽.
- 박광현, 『인양 서사란 무엇인가』, 『플랫폼』 20호, 인천문화재단, 2010. 3·4, 30~34쪽.
- 신형기, 『허준과 윤리의 문제』, 『상허학보』 제17집, 2006, 171~200쪽.
- 이규수, 『식민지 체험자의 기억 속의 ‘제국’과 ‘식민지’』, 『역사와경계』 제79집, 2011, 227~256쪽.
- 이연식, 『패전 후 한반도에서 돌아간 일본인 여성의 귀환체험-남북간의 지역차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7호, 2009, 139~189쪽.
- \_\_\_\_\_,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점령군, 조선인, 일본인 3자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혜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19호, 2008, 233~267쪽.
- \_\_\_\_\_,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대동문화연구』 78집, 2012, 317~349쪽.
- 정병욱,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 『역사비평』 64호, 2003, 129~149쪽.
- 조운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호, 2009, 241~276쪽.

최석영, 『일본인 처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문학』, 2001년 가을, 95~110쪽.

황선익, 『해방 전후 재한일본인의 패전 경험과 한국 인식』, 『한국학논총』 제34호, 2010, 1089~1117쪽.

**Abstract**

## The Gendered Representation of Former Colonizer

Kim Hye In

This article looks into how the memory/imagination of the remaining Japanese was distorted, acculturated, and restructured in the cultural and political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remaining Japanese on the Korean peninsula had been returned during one year according to the policy of the US and Soviet Union occupation troops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people were in contact with the Japanese during that one year. The experience of contacting and being separated from the remaining Japanese at that time began to be reproduced by being made clea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tual return of the Japanese. The Japanese, who were a remainder of colonization, had to be those who were nonexistent as the object of a “memory” rather than to be an existence that coexists “now-here” to the Korean people. Such a phenomenon is, in part, combined with the matter of how to remember/commemorate the experience of colonization and liberation, and, in part, it is associated with the matter of which way the relationship with Japan should be constituted and imagined after the colonial situation. Focusing on that most of the remaining Japanese who were established as the object of that memory and reproduction were limited to “women”, this article considered the implications of gender policy surrounding the (re)structuring of a colonial memory. In particular, regarding narratives after the

Korean War, they were composed of the ordeal history of Japanese women, centering on the “38 North Korea Japanese Camp”. With a focus on that, the article took a look into the context in which the (re)structuring of a colonial memory and imagination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as made while anti-Japanese ideology and anti-communism were entangled.

Key words: Japanese women, Gender, North Korea, Japanese Camp,  
Imagination of Cold War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